

8월30일(월)/로마서8:18~25

제목: 기독교의 구원은 우주적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린다”(19절)는 표현은 모든 피조물들이 종말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환경오염으로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모든 피조물, 즉 동물이나 식물 같은 자연계가 종말이 오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21~22절).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자유에 이르는 것”(21절)은 회복과 구원을 의미한다. 또 자연계 뿐 아니라 ‘성도의 몸’도 이같은 구원을 기다린다(23절). 이것은 종말 때 예수 믿은 자의 몸도 부활하신 예수의 몸처럼 온전하게 회복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몸에 장애를 입고 살았거나 중병에 시달렸던 크리스찬도 장차 종말 때에는 그 영혼 뿐 아니라 그 신체도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게 된다. 이것은 우주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우주 전체가 고통을 받고 또 우주 전체가 구원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구원을 개인 구원 혹은 영혼 구원에 한정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주적 구원, 혹은 총체적 구원이다. 이러한 우주적 구원은 장래에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이 우주적 구원을 소망해야 하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심도 가져야 한다(24~25절).

8월31일(화)/로마서8:26~30

제목: 나의 삶의 결과는 항상 '영화'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26절).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인간적인 소원과 다른 기도를 하게 하신다(27절). 성령님은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교정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에 흡수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그로 하여금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우리과 알거니와”(28절)라는 말은 이러한 사실을 늘 깨닫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간증적인 표현이다. 어떤 때에는 계획했던 일이 잘 안되는 것 같고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조그만 기다리면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간증하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선을 이루시는가? 먼저는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이다(29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 있었다. 그 다음 나를 불러 내셨다(30절). 그 다음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의롭다 하셨다(30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애착이 먼저 있었기에 결과는 당연히 ‘영화’(30절)이다. 그러므로 택함 받아 지금까지 크리스찬으로 사는 나의 궁극적인 삶의 결과는 항상 영화이다. 내가 항상 이러한 간증을 하며 사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집착 때문이다.

9월1일(수)/로마서8:31~39

제목: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보니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는가”(31절)라고 말 할 수 밖에 없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함으로 그 어떤 사람의 고발도, 정죄도, 박해도, 칼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33~35절).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심지어 천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38~39절)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32절).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 지고(至高)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것을 주셨다. 그러므로 작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가장 큰 것을 주신 분이 변변치 않은 조그만 것을 주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모든 것을 받았다고 하는 간증이 있어야 한다. 둘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34절). 우리에게 실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가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유치해지면 안된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이 안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변덕을 부려서는 안된다.

9월2일(목)/로마서 9:1~13(1)

제목: 천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1~2절). 그것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더라도 자기 동족이 예수에게 돌아오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값이 있다면 천벌을 받아도 좋다고 생각했다(3절). 바울은 애국심이 강했다. 그는 자기 동족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에 자부심이 있었다(4절). 즉 선민으로서 특별한 사명을 지니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자기 동족이 하나님의 양자의 자격과 선민의 영광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특권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민족이며, 또 그리스도가 자기 동족 가운데 출생하였다는 것에 큰 자부심이 있었다(4~5절). 바울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는 더 바랄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 단 한 가지 고통은 자기 동족이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는 것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꺼지지 않았던 고통이 동시에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20%라고 한다. 아직도 80%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저 나머지 동족을 위하여 우리도 바울의 고통을 가지며 살아야 할 것이다.

9월3일(금)/로마서9:1~13 (2)

제목: 하나님의 절대주권 (1)

바울의 고민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 하는 가이다. 이스라엘은 옛 부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였는데 그들은 왜 지금 이런 처지가 되었는가? 바울은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만이 선민이라고 가르친다(6절).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참 자녀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영적 기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셨다(7~8절).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다. 하나님께서 아직 복 중에 있는 에서와 야곱을 놓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13절)고 하셨다. 태어나기도 전에 좀 지나친 이야기 같다. 왜 하필 사기꾼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다. 하나님의 선택이란 행위 이전의 일이다. 선택이란 선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선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선행이 있다(11절). 여기에 대하여 인간은 아무 할 말이 없다. 선택 받은 사람은 ‘내가 무엇인데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이 말이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